1/16/22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 10:46-52)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와의 싸움이 언제나 끝나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이 모여질때,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아는 그림 가운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인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며는, 문에는 손잡이가 없는 – 그런 문 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께서 들어갈수 있는 그런 그림 이지요.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세지는 분명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의 주님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진 성경의 말씀 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시다가 막 그 여리고 성을 떠나는 시점에서 일어난 기록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리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 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15마일 동북쪽에 있는 도시 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대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Palestine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에서 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남쪽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때 거쳐가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는데, 그는 거지였을 뿐이나라 또한 눈먼 장인이였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같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며는, 어떤 때는 4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도 예외는 아니였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여리고를 떠나시는데, 그 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길거리에 않아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알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침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x)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의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한 마디로, 바디메오의 행동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public disturbance - 대중 소란’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제제를 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받디메오는 더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광경을 쉽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잠잠케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 그런 광경 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때, 아무리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아마 그의 목소리는 그 수많은 군중의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외침 속에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셨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 49절의 말씀 입니다 – 영어 성경에는 “Jesus stoppe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Jesus stopped” – 이것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 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취소하고 –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위해 시간을 내셨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도 없이 살았던 - 그냥 티메오의 아들이라고만 불렸던 사람이였습니다. 우리도, 한국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양반이 있었고, 하인들이 있었는데, 아주 하찮은 종들은, 이름도 없이 살았던 사실들을 알수 있습니다.

한 주석에 보며는, 바디메오는 거지인데다 맹이이였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 –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삶을 살았던 존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맹인 거지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 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불행은 그 사람의 죄 값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바리세인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레새적인 생각은, 의인은 불행해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삶의 어려움도 없고 불행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였습니다. 그럼으로,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이 찾아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으로 생각 했습니다.

요한복은 9장의 말씀을 보며는,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그를 고쳐주시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맹인을 보자마자 제자들의 첫 질문은 이런 것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2절)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맹인 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단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3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값을 치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 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닥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 입니다.

예수님은, 보잘 것 없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위해서, 그의 일정을 취소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대답 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신학자 Jill Duffield는,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도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김 예수님은, 그가 간절하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디메오를 인정해 주시는 – 바디메오의 존재 (existence)와 인간으로서의 위엄 (dignity)을 찾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배려 (caring act)”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를 고쳐 주시는데, 그 고침은 육적인 고침만이 아니라, 그가 사회의 일원이며,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디메오의 고침은, 그의 존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복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속에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에게는, 그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고침을 받고 맹인의 장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면, 고침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무엇인가 주님께 구하기를 원할때,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확실히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입니다. 많은 때, 믿음은 또한 기다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간절함으로 무엇인가 오늘 이루어주시기를 기도 하지지만,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 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치게 할때가 있습니다.

저의 친구 목회자 중에, Singapore 감리교회의 강호순 목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강호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줄 알았는데, 강호순 목사는 싱가폴 사람 입니다. Wesley 감리교회라고, 한 3000명이넘는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이 20대 때 - 40여년전에 개척을 한 교회인데, 언젠가 개척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 했는데, 거진 7-8년 동안 교인이 50여명 밖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7-8년을 목회 하면서, 강목사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드리는 중에, 강목사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매일 아침 나에게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 하는데, 이 교회가 부흥이 되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으냐? 너 보다도 내가 더 기뻐할 것이다. 너희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 보아라.” 그런 음성이였습니다.

그때, 강 목사님은 두 가지를 깨닳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그 후로,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싱가폴에서 가장 선교를 열심히 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도,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할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을 두려움을 이겨낸 것 입니다. 다시한번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생각해 볼때, 바디메오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않고, 계속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정말, 그 상황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였을 것 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 하면서, 잠잠케 하려고 달려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였을지, 우리들이 상상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한번 밖에는 주어지지 않을 기회를 놓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은, 우리들을 움추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때, 두려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꿈을 펼지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될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수 없게 우리들을 위축시킴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우리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두려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가 된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써, 우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는 , 삶의 두려움을 이기며 살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올수 있었고,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 주시면서,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가”라고 말씀 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이 고침을 받은 사실을 알고는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그의 집, 그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이야기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으로 눈이 보게되는 고침을, 예수님의 고침의 기적은, 육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였습니다.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비데메오는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를 받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적 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치유를 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큰 기적은,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삶을 살았던 맹인 거지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육신의 고침을 받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 – 인간적으로 그 전 보다는 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한 삶을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옛날, 여리고의 길가에서 바디메오를 고쳐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맹인이 아닐지라도, 혹시 영적으로 맹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줄로 압니다. 사실, 맹인이 보게되는 기적 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 큰 기적 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수 있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